

「누구에게나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담배를 피우는 「권리」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느낀다.

권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행하는 행동이라면 무엇에든지 붙여도 되는 단어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으면, 어떤 행동이든 자신의 권리라고 하면 허용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자신이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분명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것은,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이기적인(제멋대로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담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그룹에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구가 아닌가.

나는 광고 등에서, 담배 광고까지 금지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것과는 다른 루트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에티켓으로써 남 앞에서는 담배를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나서야, 자신의 권리 같은 것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